

◆ 특 집 ◆

南美 電機工業 現況 (Ⅱ)

■ 아르헨티나 편 ■

1. 전력사업 형태 및 설비 현황

- 정부는 법률 24,065호 ('91. 12. 19)에 의거, 과거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면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하여 해당기업을 민영화시키고 CAMMESA 라는 관리업체를 신설하였다.
- CAMMESA는 주식회사로서 배전협회, 발전협회, 송전협회, 대사용자협회 등 4개 관련 기관과 경제부 에너지청이 각각 20%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,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품질의 향상, 수급계획 수립, 시장감독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.

2. 발전 현황

- 총 발전설비 용량은 14,414MW로서 발전방식별로 화력 47%, 수력 50%, 원자력 3%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.
- 설비가동율은 '92. 12월 / '91. 5월에 각각 43 / 75%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생산증대와 경제안정 및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.
- 발전업체는 연방정부 소유의 AYEE, CNEA, HIDRONOR 등 3개사와 지방정부 소유 EPEC, ESEBA, SES 등 3개사, 민간기업 16 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전은 TRANSENER S.A. 1 개의 민간기업과 AYEE, EPEN, ERSE 등 3개의 연방정부가 관할한다.

### 3. 배전 현황

-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배전을 담당하던 국영기업(SECBA)을 3개사로 분리 민영화하여 각각 수도권북부, 수도권남부, 라벨라타지역 등을 관할케 되었다.
- 전국의 배전업체는 수도권의 3개사와 지방의 17개사가 관할지역을 분할, 관리하며, 가입자수 별로 보면, 수도권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EDENOR가 1,940천, 수도권 남부지역의 EDESUR가 1,880천, 여타사는 7만~8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.

### 4. 장기 전원개발 계획

- 1985년에 아르헨티나 국영수리전력공사(AYEE)가 발표한 1985~2000년의 장기전력수급 및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르면 1985년의 설비용량 9,699MW, 발전전력량 33,230GWh가 2000년에는 각각 20,994 MW, 97,470 GWh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85년도 39.0%였던 수력설비 비율이 2000년에는 62.8%로 증가하고 51.3%를 차지하던 화력설비 비율이 2000년에는 27.4%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.
- 한편,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93~95년간의 3개년 개발계획 추진과제중 하나로 서 동기간 도로, 가스, 상수도 및 용수, 전력, 전화, 항만 등 자본재 및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미불 약 300억의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며, 이 가운데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체의 약 33%인 미불 100억 수준에 이른다.

### 5. 품목별 시장동향

#### 가. 시장개요

- 연간 판매액 기준 미불 5억 규모의 중전기 시장은 신규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수요가 정체 상태를 보여왔으나, 최근의 민영화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 등으로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.

○ 중.저전압용의 제품이 주로 수요되는 동 시장은 일부품목의 조립생산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이 국산제품이 판매되었으나 91년 이후의 대외시장 개방과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열위로 수입품의 비중이 약 50%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출을 급신장하고 있다.

나. 전동기 및 발전기

○ 수급동향

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 약 63%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품이다.

○ 수입동향

연간수입은 미불 500만 규모로 주요 수입선은 브라질, 미국, 독일 등이며 브라질이 수입시장의 약 24.7%를 차지하고 있다.

〈단위 : 미천불, %〉

H.S. CODE	'92	'93(1-2)	'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(%)
8501	4,755	473	브라질(24.7), 미국(17.5), 독일(15.8) 외 프랑스, 이태리, 스페인, 일본, 대만, 중국, 홍콩, 한국 수입.

\* 자료원 : 통계청 (CIF 금액기준)

다.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

○ 수급동향

- 회전변환기는 국산과 수입품이 각각 50%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, 발전기의 경우 200~250 마력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기타 제품은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조립용 부품수입의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.

- 현지의 회전변환기 제조업체로는 전동기 제조업체인 MOCBOS S.A. 와 ELANCIR S.A., TENAS S.A.사 등이며 발전기는 SCANIA 현지 생산업체와 PERKINS사 등이 있다.

○ 수입동향

연간수입은 미불 270만 규모로 발전기는 미국과 프랑스 등이 주요 수입선이며, 회전변환기는 스페인과 이태리 등이다.

〈단위 : 미천불, %〉

H.S. CODE	'92	'93(1-2)	'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(%)
8502	2,688	384	미국(54.5), 스페인(10.8), 화란(10.5) 외 독일, 일본, 브라질 순임.

\* 자료원 : 통계청 (CIF 금액기준)

라. 변압기,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

○ 수급동향

- 변압기는 관련부품과 함께 국산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,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는 국산과 수입품의 비율이 각각 50%를 차지하고 있다.

- 변압기 주요 제조업체로는 TADEO CZERWENY S.A., PARDAY S.A., FOAMA S.A., NASARIO RIVERA S.A. 등이며 정지형 변환기는 TAIT S.A., JOB S.A., ELECTROMECHANICA LIMA Y SAIF E I 사 등, 유도자는 INDUSTRIAS WANOO, ASEA BROWN S.A. 사 등이 있다.

○ 수입동향

- 연간수입은 미불 570만이며 한국이 최대 수입선으로 20.1%의 수입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〈단위 : 미천불, %〉

H.S. CODE	'92	'93(1-2)	'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(%)
8504	5,722	959	한국(20.1), 일본(14.2), 미국(14.2), 독일(13.7) 외 싱가포르, 스페인, 이태리 홍콩, 대만, 브라질, 중국 순임.

\* 자료원 : 통계청 (CIF 금액기준)

마. 차단기와 개폐기

○수급동향

- 차단기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0%로 500W 용량까지의 제품이 생산, 수입되고 있으며 개폐기는 1,000V까지의 용량제품이 수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.

- 현지의 주요 제조업체로는 EMA, TUBIOTUCUMAN, INDUSTRIAS CICA, ELECTROMECHANICA ZOLODA, ELECTROMECHANICA LIMAY사 등이 있다.

○수입동향

- 차단기와 개폐기가 각각 미불 44만, 53만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, 브라질, 프랑스 등이 전체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다.

〈단위 : 미천불, %〉

H.S. CODE	'92	'93(1-2)	'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(%)
8535	443	77	미국(23.7), 독일(19.8), 브라질(16.9), 프랑스(14.6) 외 일본, 이태리, 한국, 싱가포르 순임.
853530	528	61	독일(29.5), 미국(14.2), 브라질(14.0) 프랑스(11.5) 외 일본, 이태리, 한국, 대만 순임.

\* 자료원 : 통계청 (CIF 금액기준)

## 바. 배전제어반

### ○수급동향

-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약 90%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면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.

### ○수입동향

- 연간수입은 미불 120만 규모로 주요 수입선은 미국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 등이다.

〈단위 : 미천불, %〉

H.S. CODE	'92	'93(1-2)	'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(%)
8544	8,065	1,583	미국(38.8), 브라질(30.3) 외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일본, 한국, 싱가포르, 이태리 수입.

\* 자료원 : 통계청 (CIF 금액기준)

## 6. 수입관련 사항

- 관세 : 충전기기 제품은 대체로 15%의 수입관세의 10%의 통계세가 CI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, 75KW급 이상의 제품은 수입관세 및 통계세가 면제된다.
-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제도 : 수입시 수입관세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일체의 규제는 없으나, 미국 등 선진각국의 규격 및 형식승인 취득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.
- 기타
  - 부가가치세 18%, 영업세 선납금 3% 등을 수입통관시 납부하여야 함.
  - L/C 개설에 따른 수수료가 매우 비싼 수준(약 1%)이며 수입자는 통상 공급자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.